

# 내면의 자유 잠깨우는 '인도' 관련서

신화·사상·미술 등... 위대한 정신의 전통 엿볼 기회

'인도'가 부른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살고 있는 나라, 분쟁과 테러 뉴스가 끊이지 않는 나라, 봉건 계급제도의 잔재 아래 대다수의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인도'라는 나라의 기묘한 매혹을 설명할 수 없다.

최근에 나온 일련의 인도 관련서들은 그 매혹이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을 향해 겨누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존 M. 콜러의 《인도인의 길》(허우성 옮김, 세계사) 라다크리쉬나 이아의 《인도신화》(김석진 옮김, 장락) 아지트무케르지의 《인도종교미술》(최병식 옮김, 동문선) 등은, 인도의 신화와 사상, 종교미술을 통해 비참한 현실에 극적으로 뿌리를 댄 눈부신 정신의 전통을 조명하고 있다.

## 자유롭고 무한한 존재로의 전환

지리·인종·종교·사상에 있어 '포착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다양성을 가진 것이 인도의 정신이었지만, 거기에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인도의 중심적인 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정한 주요 이념들과 태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인도인의 길》의 저자 존 M. 콜러의 전제다. 인도인의 길이란 곧 "본질적으로 자유의 길, 고(苦)와 파편화된 존재에 대한 속박으로부터의 해탈의 길"이라는 것.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 도달하면 우주 자체를 창조하고 체계화하는 에너지와 힘에 동참하게 되며, 그 궁극적인 에너지와 힘에 참여함으로써만 인간의 피상적이고 고통받고 제한받고 있는 존재는 자유롭고 무한한 존재로 전환될 수 있다.

저자는 이 '영적 변화'라는 목적이야말로 오랜 세월 인도인의 삶을 이끌어온 힘이라며, 그 근원이 된 인더스와 베다의 전통을 살핀다. 또 해탈의 진리로서의 우파니샤드, 인도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자이나교도의 비전, 부처의 사상, 요가, 바가바드 기타의 세계 등을 알기 쉽고 흥미로운 필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아울러 인도의 이슬람교, 시크교도의 신앙을 조명하는 한편, 현대 들어 유입된 서구이념에 인도가 대응한 방식으로서 '다르마 모델'을 소개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주창해 인도의 현대 사상가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 '다르마 모델'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집약적,

'포착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다양성을 가진 나라,

'궁극에의 참여와 영적 변화'라는

존재론적 염원이 그 다양성을

깨물고 있는 나라 인도.

최근에 나온 일련의 인도 관련서들은

인도의 사상, 신화, 종교미술을 통해

비참한 현실에 극적으로

뿌리를 댄 눈부신 정신의

전통을 조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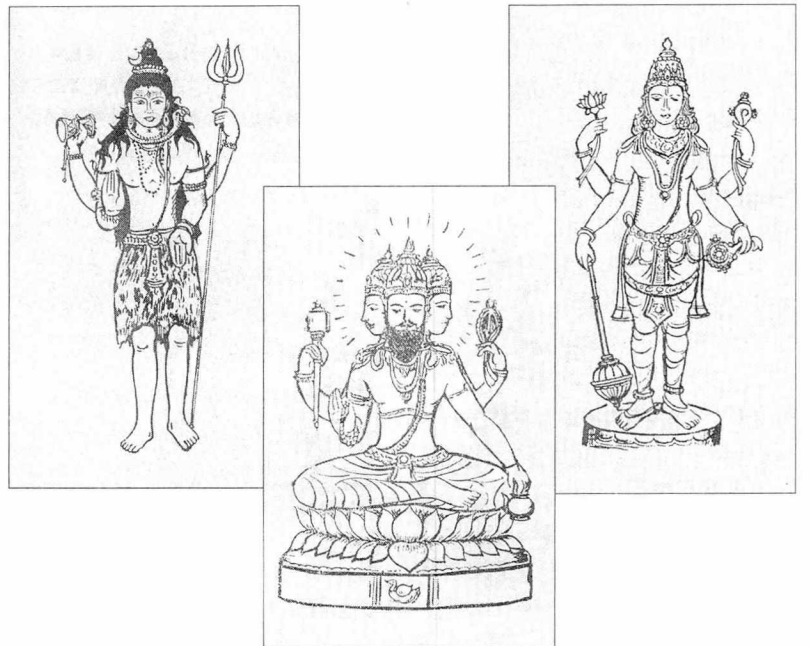
노동절약형, 중앙집중적인 생산방식을 비판한다. 인간을 원자론적이 아니라 전체론적으로, 개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 욕망의 만족과 재화의 축적보다는 자비와 보시를 근본도덕으로 강조하는 이 관점은 인간의 경쟁과 갈등이 사회의 추동력을 이룬다고 보는 서구의 사고와는 본질적인 변별성을 가진다.

## '영혼의 인식체' 인도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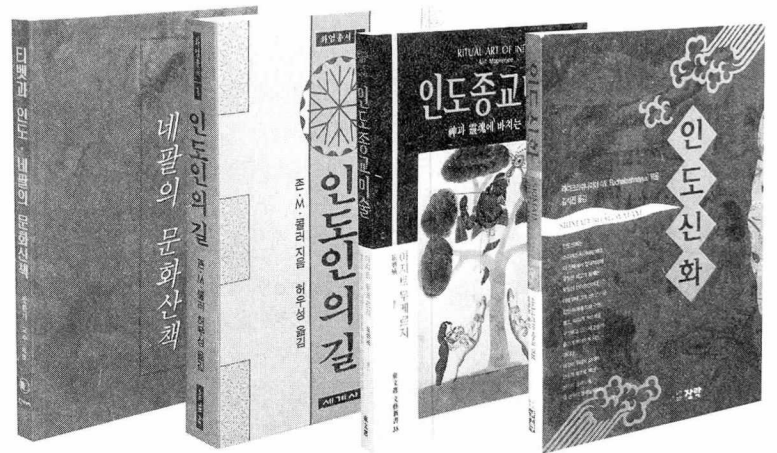
한편 스리마드 바가바담, 즉 《인도신화》는 영어문화권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영어로 소개되기 시작해 현재는 약 50권으로 나와 있다. 국내에 출간된 《인도신화》는 그 첫번째 책으로서 총론의 성격을 띤다.

어원적으로 스리(Sri)는 영어의 'Sir'의 의미며, 바(Bhā)는 '태양', 가(ga)는 '목적지', 바(va)는 '빛', 탐(tam)은 '표현되었다'는 뜻, 즉 '빛이 목적지까지 가서 표현되었다'는 의미로 '영혼의 인식체'를 가리킨다.

《인도신화》의 주인공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뱀에 물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현명한 왕 '파리시트'다. 그는 남은 일주일을 유용하게 사용해 무한한 신에게 귀일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 이 기간 동안 파리시트와 성자들, 그리고 수도승들은 수카 성인을 둘러싸고 앉아 진리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그때 파리시트와 수카 성인이 나누는 이야기가 《인도신화》의 내용을 이룬다. 6일이 지났을 때 수카 성인은 파리시트의 결을 떠나며, 파리시트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얻은 뒤 뱀에 물린다. 죽는 것은 육체 뿐이고 참된 자기는 영원히 불멸한다는 진리



파괴의 신 시바(Siva), 구원의 신 브라흐마(Brahma), 보호의 신 비스누(Visnu).



최근에 나온 인도 관련서들.

를 깨달은 것이다.

이 책에는 '신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인도의 수많은 여신과 남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브라흐만, 비스누, 시바, 사라스바티, 락슈미, 칼리 등 힌두 신들의 모습은 물론 그들이 수태지나 사자 인간, 물고기 등의 모습으로 화한 형상들도 그림으로 수록돼 있다.

## 화려하고 다양한 종교미술 소개

인도의 비옥한 종교적 토양에 토대를 두고 '살아 있는 전통'으로 현존하는 종교미술을 다룬 《인도종교미술》도 번역 출간됐다. 일체의 감각적인 쾌락을 거부한 상태의 제작자가 명상과 집중을 통해 만든 인도의 종교미술품들은 일정한 형식의 정화의례를 받은 뒤 신

의 현현으로 모셔진다. 화려함과 다양성에 있어서도 독특한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닌 이들은 '존재의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문'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일반 미술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책에는 120여 컷에 이르는 풍부한 컬러 화보들이 실려 있다. '근본을 나타내는 형상들' '자연숭배'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 '토속적인 의식' '시바이즘' '비취누이즘' '샤티즘' '제종교간의 통합' '죽음과 환생' '열락의 느낌' 등 세분된 소재목 아래 실린 해설이 심도 깊다.

— 한 강 기자